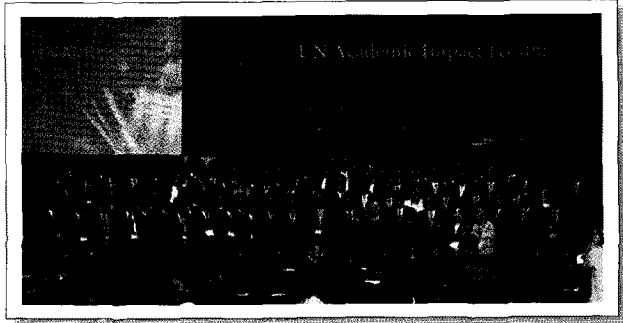


Highlights

하이라이트

반기문 유엔 총장 초청 UNAI 포럼 개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와 공동으로 8월 10일(수)부터 12일(금)까지 3일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변화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 UN과 세계의 교육공동체>를 주제로 UNAI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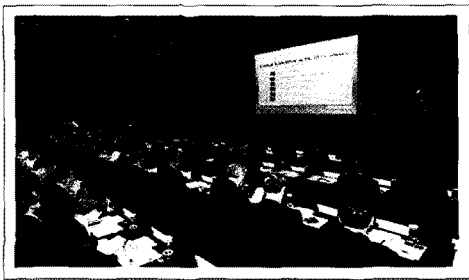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08년에 선언한

UNAI(United Nations Academic Impact)는 유엔이 개발도상국의 국민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전 세계 대학들과 함께 인권신장, 평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 고등교육체계 역량개발, 평화 및 분쟁해결,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논의하고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이다. 현재 UNAI에는 전 세계에서 700여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동대를 비롯해 47개 대학이 가입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반기문 총장, 기요타카 아카사카 유엔 사무차장, 게타추 엔기다 유네스코 사무차장, 세계 10개 'UNAI 허브 대학'총장을 비롯해 국내 대학총장 등 27개국에서 390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영길 회장이 환영사, 반기문 총장이 개회사, 김황식 국무총리와 게타추 엔기다 사무차장이 축사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 기조강연에서는 세계대학총장협회 마이클 애덤스 회장(미국 페어리 디킨슨대 총장)이 "2025년을 결정짓는 다섯가지 주요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4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주제발표, 사례발표,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2011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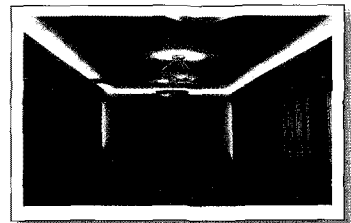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8월 9일(화) 10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글로벌시대의 대학 국제화 강화 전략>을 주제로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의 기조강연에서는 세계대학총장협회 마이클 애덤스 회장(미국 페어리 디킨슨대 총장)이 "21세기 글로벌 교육", 대교협 김영길 회장(한동대 총장)이 "교육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대교협 대학윤리위원회 부구욱 위원장(영산대 총장)이 "교육을 통한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편, 오후에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총장들과의 대화시간을 갖고,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집약하여 질의하고 정책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협력위원회 제 13차 회의 개최

대교협은 2011년 8월 19일(금)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교육협력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3차 회의에서는 회피·제척의 요청 자료범위 및 관계범위 기준 마련, 초·중등교사임용시험 방식 개선, 대입전형료 개선 방안,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논의 등을 중심으로 교육 전반에 관해 일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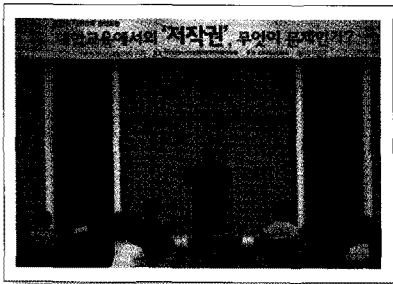


향후 논의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길 한동대 총장(협력위 위원장),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 권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민경천 연세대 교수, 이영우 경상북도 교육감, 성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신금봉 부산시민사회교육연합 상임대표, 이옥식 한가람고 교장,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황대준 대교협 사무총장 등 협력위원 10명과 대교협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포럼 기초강연에서는 세계대학총장협회 마이클 애덤스 회장(미국 페어리 디킨슨대 총장)이 “2025년을 결정짓는 다섯가지 주요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4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주제발표, 사례발표,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제 33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 대학교육 저작권문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7월 15일(금) 오후 1시부터 한양대 HIT(한양종합기술연구원) 6층 대회의실에서 <대학교육에서의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제33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대학들은 전반적으로 대학현장에서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권 보상금을 초·중등교육과 마찬가지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보상금 기준 고시 등 저작권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 등을 논의하였다.

대교협은 “강의 공개와 강의 자료 공유가 확산되는 세계적동향 속에서, 대학수업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제도가 타당한지를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대학의 환경과 현실을 고려하여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살리면서 저작권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연구 및 구체적인 법률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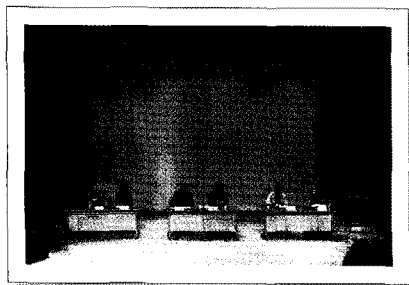
제 170차 이사회 개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1년 6월 23일(목)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제170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등록금 대책 TF 활동, 2011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개최 계획, UNAI 국제세미나 개최 계획,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료 부당징수 대책위원회 구성, 한중일 고등교육교류사업 추진 상황, 2010년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결과, 회비 미납대학에 대한 조치 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한국교양센터 설치 운영 계획(안), 대교협 관련 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제 34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 입학사정관제 발전방향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8월 26일(금) 오후 1시부터 세종대학교 학생회관 대공연장에서 <입학사정관제의 성과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우리나라 입학사정관제가 대학의 학생선발 체제의 선진화를 위해 도입된 지 5년이 지나 정착하는 시점에서 입학사정관제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교협은 이날 정책포럼에서 발표된 ‘입학사정관제 중장기 발전방안’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한 논의사항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